

소리 세대(sonic generation): 엔텔레키, 테크놀로지, 감성의 공동체*

정 이 은**

(한양대학교 전임연구원)

정 혜 윤***

(명지대학교 교수)

이 상 옥****

(한양대학교 교수)

정 경 영*****

(한양대학교 교수)

1. 서론

‘세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사용되는 단어다. 특히 나이에 따른 서열 관념이 뚜렷한 우리 사회에서 세대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를 구분 짓는 요소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신의 출생 연도에 따라 자신을 ‘386세대’, ‘X세대’, ‘MZ세대’ 등의 용어로 구분한다. 심지어 세대를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은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세대별 정치적 성향처럼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요소로도 활용된다.¹⁾ 이러한 세대 지칭 용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2990).

** 제1저자.

*** 공동저자.

**** 공동저자.

***** 교신저자.

들과 함께, 세대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용어들인 세대 균열, 세대 갈등 등의 용어는 이제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세대와 관련된 이러한 다양한 용어들의 사용은 오늘날 세대가 한국 사회를 인식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의 하나임을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세대에 대한 담론들이 우리의 일상에 보편적인 것으로 느껴질 만큼 양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세대를 다루는 이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대’의 개념이 엄격하게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²⁾ 다시 말해, 이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미로 세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³⁾ 세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는 여러 세대들을 구분하는 데에 있어서 상존하는 자의성과 주관성의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세대를 논의하는 개별 연구자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⁴⁾

세대 담론의 토대 자체가 가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세대론에서 칼 만하임(Karl Mannheim, 1893-1947)의 이론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만하임 이후에 등장한 다양한 세대론들은 어느 정도 만하임의 이론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것에 대한 비판적 혹은 수정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다.⁵⁾ 이러한 수정주의적 입장은 만하임의 이론이 등장한 지 백 년이 되어가는

- 1) 노환희, 송정민, 강원택,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7/1 (2018), 205-240.
- 2) Bryan S. Turner (ed.), *The Cambridge Dictionary of Soci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233-235; 박재홍,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2001), 47-78; 전상진,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38/5 (2004), 31-52.
- 3) 최셋별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세대 개념이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1) 친족 계보 내의 같은 항렬을 사용하는 사람들, (2) 만하임의 코호트적 의미, (3) 생애 주기상 동일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 (4)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 최셋별,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연대기: 세대 간 문화 경험과 문화 갈등의 자화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20-24.
- 4) 전상진,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33.
- 5) Ulrike Jureit and Michael Wildt (eds.), 『‘세대’란 무엇인가? 카를 만하임 이후 세대담론의 주제들』(*Generationen: Zur Relevanz eines wissenschaftlichen Grundbegriffs*), 한독젠더문화연구회 역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는 그러한 시각을 전면에서 드러내는 연구서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이 이론이 오늘날의 다양한 세대 현상들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입장은 만하임의 이론이 간과했던 부분들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소리 연구(sound studies)가 기존의 세대 연구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세대 연구가 소리 연구에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한다. 다양한 청각 현상들이 한 사회와 문화의 양상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 지표들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기존의 세대 연구에서 소리적, 음악적 차원들이 언급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은 본 연구가 촉발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이는 물론 세대 연구의 큰 틀을 제시한 기존의 만하임의 이론에서 세대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 한 시대의 중요한 정치적, 역사적 사건인 점에 대한 수정주의적 견해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등장하는 수정주의적 견해에서 강조되는 정서적 차원의 세대 담론 속에서도 시각적 차원의 문제는 많이 다루지지만, 청각적 차원이 언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지점은 현재의 세대론에서 관찰되는 주된 연구 공백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다양한 세대 담론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역할을 하는 만하임의 이론을 만하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만하임의 이론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각들을 제시한 다음, 이를 청각적 차원에 적용하여 소리 연구가 세대 담론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조망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II. 기존의 세대 이론: 만하임의 이론을 중심으로

1. 만하임 이전의 세대 이론

세대 현상에 관한 관심은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요즘 애들은…” 혹은 “나 때는…”과 같은 표현과 그 표현이 드러내는 인식의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옳듯이 학문적 관심만도, 오늘날 새삼스레 제기되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오래된 일상의 관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문적 관심으로 다룰 수

있게 한 사람은 사회학자였던 만하임이다. 만하임은 1928년 “세대 문제”(Das Problem der Generationen)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초석을 마련했다.⁶⁾ 비록 이미 오래 전에 발표된 논문이지만 아직도 이 논문은 근대적 의미의 세대 연구의 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오늘날의 세대 연구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하다. 소리 연구가 세대 현상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소리와 관련된 독특한 세대 현상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기 전에, 이 장에서는 세대 현상에 대한 만하임의 문제의식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세대 문제』의 우리말 번역자인 이남석은 이 책의 해제 부분에서 만하임이 세대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라고 말한다.⁷⁾ 첫째는 젊은 세대는 진보적이고 기성 세대는 보수적이라는 당대의 상식적 세대관과는 배치되는 역사적 경험이다. 1830년대 독일 자유주의 운동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기성세대에 비하여 1871년 독일 통일을 경험한 청년 세대는 반유대주의와 범게르만주의에 찬성하는 극단적 민족주의를 선호하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 상식과는 다른 진보-보수의 연령별 차이가 만하임이 세대 연구를 하게 된 첫 번째 동력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러시아 혁명 전후로 독일의 청년들에게서 나타난 다양한 이데올로기 운동이다. 보수주의, 자유주의, 무정부주의 등과 같은 다양한 이념들이 동일 국가, 동일 시대, 같은 나이 대의 청년들에게서 나타난다면 이들을 하나의 세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였던 것이다. 셋째로는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즉 개인으로서의 아버지와 자식의 갈등이 아니라 집합으로서의 아버지와 집합으로서의 아들 사이의 갈등, 즉 집단이 갖는 독특한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들의 차이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이 만하임의 또 다른 궁금증이었던 것이다.

만하임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대 문제』에서 세대 현상을

6) 이 논문은 *Kölner Vierteljahreshefte für Soziologie*라는 학술지에 1928년과 1929년, 두 번에 걸쳐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ed. Paul Kecskemeti (New York: Routledge & Kegan Paul Ltd., 1952)로 영역되었다. 우리말로는 『세대 문제』, 이남석 역 (서울: 책세상, 2013)으로 출간되었고, 2020년 12월과 2021년 4월에 각각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개정판이 나왔다. 본 논문에서는 2021년 전자책 개정판을 주로 참고하고 있다.

7) Mannheim, 『세대 문제』, 78-81.

이해하는 기존의 입장들을 요약, 정리하고 비판한다. 그가 비판하는 기존의 입장은 실증주의적 입장과 낭만주의-역사주의적 입장이다.

1.1. 실증주의적 입장

만하임이 보기에 실증주의적 입장은 세대 현상을 자연과학적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다. 실증주의적 입장은 주로 콩트(Auguste Comte, 1798-1857)와 같은 19세기 프랑스인들의 저작에서 나타나는 입장이다. 이들은 역사를 단선적 진보개념으로 이해하고 역사의 흐름과 변화를 양적으로 측정,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들은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세대 현상을 이해하는 실증적 척도로 여겼다. 즉, 인간의 수명과 생물학적 쇠락이 세대 현상의 기본구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세대 현상을 이해하려는 이들의 관심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계산하고, 이 평균수명에서 창조적-사회적 활동을 하는 기간을 추려낸 뒤, 이에 근거하여 세대 현상이 나타나는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결국 세대의 변화라는 역사적 리듬은 인간의 생물학적 리듬과 공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쉽게 짐작할 수 있듯, 이러한 생물학적 결정론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세대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만하임은 실증주의적 세대 이론에 대하여 이 이론이 세대 현상을 단순한 도식적 심리학으로 환원해 버린다고 하면서 “연장자는 항상 보수적인 요소로 그리고 청년은 저돌성의 상태로 보일 것”이라고 설명한다.⁸⁾ 즉, 실증주의적 세대 이론은 만하임이 세대에 대해 연구하기로 마음먹었던 그 역사적 경험(통일 독일 세대가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보수적 성향을 갖는)을 설명해 내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하임은 세대 현상을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또 다른 입장, 낭만주의적-역사주의적 입장을 고려한다.

1.2. 낭만주의-역사주의적 입장

실증주의의 입장이 세대 현상을 자연과학적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였다면, 낭만주의-역사주의적 입장은 이 현상이 자연과학과는 구별되는 정신과학

8) Mannheim, 『세대 문제』, 17.

(Geisteswissenschaft)의 문제라고 여겼다. 정신과학이란 철학, 문학, 역사학과 같은, 말하자면 오늘날 인문학이라고 여겨지는 분야를 말한다. 실증주의자들과는 달리 낭만주의-역사주의적 진영에 있었던 학자들은 이들 분야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해와 해석이라고 여겨, 자연과학의 방법론과는 다른, 나름의 독특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믿었다.

만하임은 실증주의적 입장이 주로 19세기 프랑스 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독일학자들의 입장에서 세대 현상에 대한 낭만주의적, 역사주의적 해석을 찾았다. 그가 제일 먼저 주목한 학자는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였다. 딜타이는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시간과 구별되는 질적으로 파악 가능한 경험의 시간을 구별하고 세대 문제는 순수하게 질적으로만 파악 가능한 내적 시간의 현존이라고 주장했다.⁹⁾

실증주의적 입장의 학자들이 주로 세대 변화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낭만주의-역사주의적 입장은 한 세대가 어떻게 그들의 동시대성을 갖는가 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동시대인들은 그저 연대기적으로 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생물학적 공통성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문화, 사회-정치적 환경에서 드러나는 동일한 '영향'을 경험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동시대인이 되는 것이다.

만하임은 낭만주의적, 역사주의적 세대론을 펼치는 또 다른 중요한 이론가를 언급한다. 그 사람은 예술사가였던 핀더(Wilhelm Pinder, 1878-1947)다. 핀더는 딜타이의 경험된 질적 시간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이에 근거하여 세대 현상에 나타나는 '동시대의 비동시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다양한 세대가 동일한 연대기적 시간에 살고 있다 해도, 그들이 경험하는 시간의 질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세대는 모두 질적으로 서로 다른 내적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음악적 비유를 들어 개별적으로 현존하는 세대층들이 경험하는 시대의 사유는 다성적(polyphonic)이라고 말한다.

만하임은 이러한 입장이 실증주의자들의 도식적 세대 이론의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의 연대기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성

9) Mannheim, 『세대 문제』, 21.

공적이지만 이 입장 역시 충분치 않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핀더의 입장을 따르자면 연대기적 세대를 아우르는 통일성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런 것이 나타난다면 (앞의 비유를 따라) 각기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다양한 성부들의 우연한 화음일 뿐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딜타이와 핀더로 이어지는 입장은 세대와 세대에 의해 생겨나는 독특한 공동체가 우연의 산물로 치부되거나 그저 매우 신비로운 현상 정도로 여겨질 뿐이라는 것, 즉 세대 현상에 대한 학문적 이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하임은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관계’에서 세대 현상을 이해하는 단초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만하임의 세대 이론

앞서 지적했듯이 만하임은 자신이 분석했던 기존 세대 이론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는 독일 통일 이후 전개된 ‘세대 현상’에 대해 자신이 경험한 특징을 제대로 설명해 내지 못하는 문제점이었다. 실증주의적 세대 이론은 기본적으로 동일 시점에 이질적 정체성을 지닌 여러 세대가 공존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한다. 그에 비해 낭만주의-역사주의적 세대 이론은 이런 공존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종종 서로를 적극적으로 구별 짓고 어떤 경우에는 ‘세대 갈등’이라는 형태로 반목하기도 하는 복수의 세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대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설명이 부족했다.

이 지점에서 만하임은 세대의 정체성을 단순히 특정 시기에 태어나 특정 시점에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인구집단이나 특정 시기가 제공한 역사적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내재화한 개인들의 혼성적 묶음 이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도입하는 개념이 바로 엔텔레키(entelechy)이다.¹⁰⁾

만하임은 세대를 사회적 의식이 성숙해 가는 성장기에 특정 시기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을 함께 겪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집단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중

10) ‘동시대의 비동시성’ 개념과 마찬가지로 만하임은 예술사학자 빌헬름 핀더의 엔텔레키 개념에서 영감을 받아 세대 엔텔레키 개념을 발전시켰다. 핀더와 만하임의 엔텔레키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Colin Loader,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of Karl Mannhe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82 이후를 참조.

요한 점은 만하임에게 세대는 실증주의자들의 생각처럼 특정 시기에 태어났다는 사실(예를 들어, ‘베이비 붐 세대’)만으로는 정의될 수 없고 성장 시기에 발생한 주요한 사회적, 문화적 사건을 함께 경험하고 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여 이후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하나의 집단으로 정의되는 개념이었다. 이렇게 세대 규정에 있어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서 성장기를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는 만하임은 이를 ‘세대 위치’라고 지칭한다. 하지만 동일한 ‘세대 장소’를 공유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같은 세대에 속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세대에 속하기 위해 개인은 그 ‘세대 장소’가 제공하는 역사적 경험을 함께 해야 하며 이 경험이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 조건이 추가적으로 만족되어야 비로소 만하임은 ‘현실태로서의 세대’(generation in actuality) 혹은 ‘실제 세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¹⁾

결국 만하임의 세대 이론에 따르면 특정 세대는 ‘세대 위치’를 공유할 뿐 아니라 그 ‘세대 위치’가 제공하는 역사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세대적 정체성과 이후의 삶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실제 세대’로 ‘완성’된다. 이 지점에서 고대철학부터 내려온 엔텔레키 개념이 중요해진다. 만하임은 자신이 정의한 방식으로 완성된 ‘현실 세대’가 세계를 해석하는 특정한 방식(Weltanschauung) 혹은 삶을 영위하는 스타일을 엔텔레키라고 칭했다.

엔텔레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가능태로 존재하는 것과 현실태로 존재하는 것을 구별하는데 물질 혹은 질료(matter)가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되거나 혹은 형식(form)을 얻게 되면 비로소 진정으로 존재하는 대상이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부여받아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질료는 가능태의 기저로서만 의미를 갖는 반면, 이 가능태는 구성 원리 혹은 본질(essence)에 해당되는 형식(form)이 더해질 때만 진정으로 존재하는 현실태가 된다.¹²⁾

11) 만하임 세대 이론을 20세기 여러 역사적 사건과 연관지어 분석한 사례 연구로는 Brent J. Steele and Jonathan M. Acuff, *Theory and Application of "Gener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 and Polit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 참조.

12) S. Marc Cohen and C. D. C. Reeve, "Aristotle's Metaphysics," i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s://plato.stanford.edu/entries/>

아리스토텔레스는 질료와 형식이 항상 함께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오직 존재론적 분석 차원에서만 구별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영혼론』(*De Anima*)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유기체에서 유기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생명력이 없는 사물과 구별되게 하는 ‘영혼’(soul) 혹은 ‘활기 기능’(vital function)이 함께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이렇게 유기체를 비유기체 즉 죽어있는 사물과 ‘구별 짓는’ 구성 원리를 엔텔레키라 칭하였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엔텔레키는 가능태를 현실태로 만드는 구성 원리이자 그렇게 완성된 현실태를 다른 현실태와 구별 짓는 독특한 ‘본질’을 부여하는 정체성 원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만하임이 세대의 형성 과정을 지배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 완성된 ‘실제 세대’의 세계관과 삶에 대한 태도를 특징짓는 개념으로 엔텔레키를 택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 다만 만하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에 대한 강한 형이상학적 견해가 역사적으로 유동적이며 경계를 깔끔하게 나누기 쉽지 않은 세대 규정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실제 세대’가 아주 명확한 ‘사회적 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며 세대 형성에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 혹은 경험이 점진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한 ‘실제 세대’ 내에서도 분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특정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처럼 동일한 ‘실제 시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부 분화의 결과물을 만하임은 ‘세대 단위’(generational unit)라고 명명한다.

III. 세대 이론에 대한 대안적 접근

1. 엔텔레키로서의 테크놀로지

앞서 지적했듯이 만하임은 자신이 살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세대 관련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세대 위치’, ‘실제 세대’, ‘엔텔레키’, ‘세대 단위’ 등의 개념을 활용한 세대 이론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젊은 세대가 성장기에 경험한 역

사적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기성세대보다 정치적으로 더 보수적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세대 이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다면 21세기 시점에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만하임의 이론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 혹은 극복해야 할까? 첫 실마리는 기술(technology)에서 찾을 수 있다.

기술에 대해 생각할 때 흔히 우리는 휴대전화와 같은 ‘첨단’ 기술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기술의 어원인 ‘technē’는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 인공물을 만들어 내는 기법 혹은 구체적이고 맥락화된 지식을 의미했고 이런 의미는 과학지식과 결합하여 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인공물을 만들어 내는 현대 기술(techn(e) + logy)의 사전적 의미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간단히 말해서 휴대 전화만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너무도 익숙한 연필이나 신호등도 기술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악기도 기술이고 그것을 ‘녹음’하는 것도 기술이며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청취’하는 것도 기술이다. 이렇듯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기술은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으며 우리 삶의 기본 조건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한때 유행했던 광고 카피로 ‘기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 있었다. 피곤함을 무릅쓰고 끊임없이 날아오는 휴대 전화 메시지에 답하거나 SNS의 ‘좋아요’ 버튼을 반강제적으로 누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광고 카피의 허구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살짝 바뀌어서 ‘기술이 우리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에 공감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행기로 이동해도 한참 걸리는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거리를 걸으며 통화가 ‘가능하게’ 만든 것은 휴대 전화라는 기술 덕분이다. 물론 그 기술이 우리의 사회적 행동을 특정 방식으로 제한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제한이 기술이 제공하는 ‘가능성’ 자체를 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가능성으로서의 기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능성을 실현해 주는 기술의 특징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에서의 엔텔레키의 중요한 특징을 만족한다. 물론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의미한 존재론적 거대이론 수준에서의 가능성 실현은 아닐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이 오직 가능태로만 존재하다가 특정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그 가능태를 현실태로 전환한다는 생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기술철학자들이 그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

다.¹³⁾ 하지만 앞서 고찰한 만하임이 사용한 의미로서의 엔텔레키, 즉 ‘실제 세대’를 규정하는 형성 원리 혹은 삶의 형태로서의 엔텔레키는 21세기 맥락에서의 기술의 특성, 특히 ‘세대 단위’를 규정하는 역할로서의 기술의 특성을 짚어 내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대중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MZ세대를 규정하는 대표적인 특징은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해 온 세대여서 그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데 능숙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상호작용 방식에 편안해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특징이 사람들 사이의 ‘제대로 된’ 대화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차분하고 깊은 사고를 방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¹⁴⁾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대표적인 특징이 MZ세대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즉 만하임 식으로 말하자면 MZ세대의 엔텔레키에 해당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하임의 엔텔레키가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의 맥락에서 특정 세대가 성장기에 경험한 정치적, 사회적 변동 현상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면, 21세기 세대를 규정하는 엔텔레키의 중요한 요소는 특정 세대가 성장기에 경험한 기술이 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21세기 기술기반 사회에서 기술을 세대 단위 규정의 핵심적 요소인 엔텔레키로 규정함으로써 만하임의 세대 이론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소리 세대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만하임의 엔텔레키 개념을 기술로 확장하여 재규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자. 만하임은 19세기 독일의 맥락에서 독일 통일을 비롯한 여러 굵직한 정치적 사건이 특정 세대의 엔텔레키를 규정하는 데 끼친 결정적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그는 ‘모든’ 세대가 이렇게 분명하게 경계 지을 수 있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 규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는 정치적 경험과 그에 대한 의미 부

13) 기술의 본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는 Robert C. Scharff and Val Dusek (eds.), *The Philosophy of Technology: Technological Conditions, an Anthology*, 2nd edition (New York: Willey-Blackwell, 2014) 참조.

14) Sherry Tuckle, *Reclaiming Conversation: The Power of Talk in a Digital Age* (New York: Penguin Books, 2015); Nicholas Carr, *The Shallows: What the Internet is Doing to Our Brains*, updated edition (New York: W. W. Norton & Co., 2020).

여가 세대를 규정한다는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만하임의 이론은 세대 규정에서 기술이나 문화와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세대 이해의 시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로 기술적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길을 걸으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세대는 자신들이 기존 세대와 확실하게 차별된다고 느꼈으며 삶에 대한 태도나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역시 보다 '자유롭고 진취적'이라고 느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 규정이 객관적으로 타당했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20세기 후반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기술적 인공물을 성장기에 경험한 개인들이 특별한 '세대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은 경험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며 이것만으로도 만하임의 엔텔레키 개념을 기술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유의미하다고 여겨진다.

2. 감성 공동체로서의 세대

우리는 만하임의 엔텔레키 개념을 기술로 확장함으로써 오늘날의 세대 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 우리는 만하임의 이론에서 간과된 부분이었던 정서적 측면에서의 세대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만하임 이후에 등장한 다양한 세대 담론들은 어느 정도 만하임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의 이론이 만들어졌던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1920년대 후반의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유럽 사회)이 영향을 미쳤던 요소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경향을 보인다.¹⁵⁾ 특히 만하임이 세대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오늘날의 수정주의적 경향 속에서는 세대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정서적, 개인적, 주관적 측면이 강조된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기존의 만하임이 간과했던 요소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세대를 '감성 공동체', '기억 공동체', 더 나아가서 '상상의 공동체'라고 주장하

15) Ulrike Jureit and Michael Wildt, "세대들," 『'세대'란 무엇인가? 카를 만하임 이후 세대담론의 주제들』(*Generations: Zur Relevanz eines wissenschaftlichen Grundbegriffs*), eds. Ulrike Jureit and Michael Wildt, 한독젠더문화연구회 역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29.

는 최근의 연구들은 만하임의 이론에서 충분히 강조되지 못했던 문화적 층위를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¹⁶⁾ 이러한 결과는 결국 기존의 세대 담론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소리와 음악의 차원과 세대 담론이 교차하는 지점이 존재하고, 그 지점은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준다.

『‘세대’란 무엇인가?』의 여러 저자 중 한 명인 하보 크노흐(Habbo Knoch)는 만하임의 이론에서 간과된 사진 이미지의 역할에 주목한다. 그는 20세기에 들어서서 사진 이미지가 세대 형성과 갖는 관계성을 중심으로, 세대를 ‘감정 공동체’라고 주장한다.¹⁷⁾ 전쟁과 같이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공유된 경험’이 강조되는 만하임의 이론에서 사진 이미지나 그것들이 환기시키는 감정과 같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이 논의되지 못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¹⁸⁾

크노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세대 담론의 빈 공간을 발견한다. 크노흐는 사진 이미지가 과거 한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세대를 구성하는 힘을 가졌다고 이야기한다. 그에 따르면 사진을 통해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끊임없이 ‘현재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러한 경험 속에서 사진은 모종의 ‘감정 저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¹⁹⁾ 다시 말해 사진은 경험된 시간에 구조를 부여하고 감정을 환기시킴으로써 그 감정을 공유하는 이들과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사진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감정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터클이 주장하는 ‘환기 대상’(evocative object)과 연결된다. 환기 대상은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 느낌 등을 촉발시킴으로써 그들의 내적 삶에서 특별한 의미를 획득하는 사물을 지칭한다.²⁰⁾ 크노

16) 유라이트와 빌트가 편집한 『‘세대’란 무엇인가?』는 독일어권의 다양한 분과학문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만하임 이후의 세대론의 다양한 주제들을 소개한다. 이 저서에 포함된 13인의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만하임의 세대론을 가지고 독일 근현대사의 문제들을 새롭게 해석한다.

17) Habbo Knoch, “감정공동체: 현대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와 세대,” 『‘세대’란 무엇인가? 카를 만하임 이후 세대담론의 주제들』(*Generationen: Zur Relevanz eines wissenschaftlichen Grundbegriffs*), eds. Ulrike Jureit and Michael Wildt, 한독젠더문화연구회 역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406-440.

18) 사진 매체는 19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192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대중들 사이에서 전파되기 시작했다.

19) Knoch, “감정공동체,” 407.

20) Sherry Turkle, *Evocative Objects: Things We Think With* (Cambridge:

흐가 '감정의 저장소'라고 부른 사진들은 특정한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의 사람들에게 환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또한 크노흐는 사진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공유된 정서를 환기시키는 과정이 '제의적'이라 말한다.²¹⁾ 그것은 만하임과 동시대 인물인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이 사진예술을 가리켜 기술복제 시대에 아우라가 붕괴된 것으로 설명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동시에,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새로운 기술 문화 속에 투사된 제의적 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대중 매체다. 세대의 구성원들이 행위자이자 소비자가 되는 대중 매체 공간 속에서 사진 이미지는 감정을 이미지로 재현하고, 환기시키고, 생산함으로써 세대 형성 과정에 동참한다.²²⁾ 더 나아가서 크노흐는 그러한 감정들이 하나의 세대 집단 내에서 구별 가능한 것이 될 때 하나의 세대 단위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²³⁾ 이는 만하임이 '세대 위치'를 같은 시대에 태어나 역사적으로 같은 경험을 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설명한 것을 떠올리게 해준다.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어떤 이들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작동하는 만하임의 세대 위치는 크노흐의 논의를 통해서 비로소 주관적이고 가변적인 속성으로 변화하게 된다.

대중 매체 속 사진 이미지가 갖는 정서적 속성과 그로부터 형성되는 집단적 연대감이 세대 문제에 있어서 만하임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 중의 하나라는 크노흐의 지적은 세대를 '기억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유라이트(Ulrike Jureit)의 논의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²⁴⁾ 사진을 통해 경험된 과거가 '현재성'을 가지는 것이 한 집단의 공유된 정서를 형성한다고 크노흐가 주장한 것과 비슷하게,

MIT Press, 2007).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정혜윤,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은 어떻게 전 국민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는가?,” 『인문논총』 78/4 (2021), 356-360을 참조할 것. 또한 본 논문의 “IV.2. 세대를 결속하는 소리의 힘”에서는 환기 대상으로 작용하는 소리와 감정 공동체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이어진다.

21) Knoch, “감정공동체,” 436-437.

22) Knoch, “감정공동체,” 409.

23) Knoch, “감정공동체,” 416.

24) Ulrike Jureit, “기억공동체로서의 세대: 세대적 오브제 ‘유대인 추모비,’” 『‘세대’란 무엇인가? 카를 만하임 이후 세대담론의 주제들』(*Generations: Zur Relevanz eines wissenschaftlichen Grundbegriffs*), eds. Ulrike Jureit and Michael Wildt, 한독젠더문화연구회 역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339-369.

유라이트는 과거에 대한 기억은 고정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조건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그는 과거는 재구성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과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점에 주목한다.²⁵⁾ 이는 앞서 언급했던 환기 대상이 집단적 수준에서 발휘하는 효력과도 연관된다. 어떠한 환기 대상이 떠올리게 해주는 기억은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 흩어져 있다가 그들의 소통과 상호작용 속에서 창발되기도 한다. 그것은 구성원 개인들의 기억들을 모두 합한 것이 아닌,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한 집단이 공동으로 구축한 집단적 내러티브인 것이다.²⁶⁾

유라이트는 2005년 독일 베를린에 건립된 ‘학살된 유럽 유대인 추모비’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제로 세대 문제에 접근한다. 이 기념비는 독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독일인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한 세대의, 또는 한 세대가 또다른 세대를 대하는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추모비’라는 미학적 기획을 통해 추모비 건립의 주체가 된 독일의 68세대들은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그들의 부모세대와 단절을 연출하고, 자신들을 스스로 파시즘의 희생자로 상상한다.²⁷⁾ 이들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윤리적 시작을 선언함과 동시에, 스스로가 ‘도덕적 엘리트 세대’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 다르다고 선언함으로써 자신들의 과거를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과거에 대한 이미지를 창조해낸다. 이 과정 속에서 세대 문제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집단적 기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²⁸⁾

만하임 이후에 등장한 세대 담론들은 만하임이 강조했던 정치적, 사회적 요

25) Jureit, “기억공동체로서의 세대,” 343.

26) 정혜윤, “〈미스트롯〉, 〈미스트롯〉은 어떻게 전 국민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는가?” 357.

27) Jureit, “기억공동체로서의 세대,” 351-352.

28) 독일 68세대의 이러한 윤리적 우월 의식은 이후 탈정치, 소비주의 등을 앞세운 ‘골프 세대’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이들이 ‘골프 세대’라고 명명된 것은, 이들의 첫 자동차가 폭스바겐 사의 골프였고, 이들이 느슨하게 결합된, 취향을 공유하는 세대였기 때문이었다. 크노흐는 이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운동으로 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기호화된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한다. Knoch, “감정공동체,” 416-417.

소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서,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을 세대 담론으로 끌어 들었다. 이 과정에서 사진이나 기념비와 같이 미학적, 예술적인 차원이 함께 작동하는 사물들이 세대를 구성하는 강력한 요소로 언급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분명 소리적, 음악적 차원의 논의가 만하임 이후의 세대 담론에서 차지해야 할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을 암시하는 사실일 것이다.

IV. 감성 공동체로서의 소리 세대

이 장에서 우리는 소리가 세대를 구성하고 구체화 내는 강력한 자원임을 제안할 것이다. 앞서 우리는 세대가 생물학적 생애주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심리적인 차원의 다양한 동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동인들은 만하임이 집중했던 정치적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다양한 수준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앞에서 우리는 세대가 감성 공동체로서 형성되고 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제 이 장에서는 세대를 형성하고 세대의 특성을 규정하며 세대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강력한 자원으로 소리라는 힘이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소리가 갖는 이러한 힘을 통해 세대와 세대성이 갖는 구성적인 성격, 세대와 세대성 형성의 구심점이 되는 요인들의 다차원적 특성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이한 세대로 분화시키기도 하고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을 동일한 세대로 묶어주기도 하는 소리의 힘을 기억의 환기, 그리고 집단적 내러티브와 집단적 감성, 집단 정체성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1. 소리 세대

우리의 삶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다. 각 가정은 현관벨 소리, 세탁기와 진공청소기 소리, 커피머신과 블렌더 소리, 밥이 다 되었음을 알려주는 전기밥솥 소리, TV 소리, 애플(Apple)의 시리(Siri)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Cortana), 삼성의 빅스비 등 인공지능 개인비서가 내는 안내 소리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거리는 자동차 소리, 버스의 도착과 횡단보도의 신호 바뀜을 알려주는

소리,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가요 소리, 휴대폰 소리와 카카오톡 알림 소리로 넘쳐난다. 헤드셋을 통해 들리는 클래식 음악 소리,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팟 캐스트 소리처럼 좀 더 개인적인 수준에서 파고드는 소리들도 있다. 이러한 소리 풍경은 우리 삶에 호흡처럼 스며들어 있어 마치 늘 그 자리에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불변한 채 펼쳐져 있을 것만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삶을 수십 년 전으로만 되돌려 보아도 금세 확인된다. 가령 1970년대 한국의 소리 풍경에 인공지능 개인비서의 소리나 카카오톡 알림소리, 버스 도착 알림소리는 없다. 반면 오늘날 한국의 소리 풍경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애애앵~애앵~’하는 통행금지 사이렌 소리, 골목길에서 행상인들이 구성지게 뱉어내던 “참싸아알떡~메밀묵!” 소리가 1970년대에는 한국의 밤을 진하게 채색하고 있었다.

일상의 소리 풍경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배경과 상황에 따라 이처럼 시대적으로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구획된다. 그런데 특정 시대의 특정 조건이 비로소 가능하게 하는 소리 풍경이 동시대인들의 소리 풍경을 균일하게 물들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활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일상에 시리나 빅스비의 소리는 없을 것이다. 한편 어떤 소리는 시대를 가로질러 사람들의 삶을 관통하며 오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참싸아알떡~메밀묵!” 소리는 2020년대 한국의 소리 풍경에서는 사라졌지만 추운 겨울 이 소리를 쫓아 야식을 사먹었던 사람들, 이 소리를 들으며 군침을 삼켰던 사람들, 심지어 이 소리를 직접 들어볼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그저 이 소리가 과거 길거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울렸으며 얼마나 정겹고 향수 어린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만 전해 들은 젊은이들의 의식 속에 때로는 선명하게 때로는 희미하게 살아 있다.

우리는 이제 특정 소리에 대한 지각 혹은 기억이나 내러티브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유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을 이들이 소리를 매개로 하여 특정 시대 혹은 특정 시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리 세대’라고 부르코자 한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소리 세대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소리의 힘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겠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의 힘을 바탕으로 소리 세대가 형성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적 메커니즘과 심리적 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 세대를 결속하는 소리의 힘

1982년 이전 매일 밤 12시, 길거리에서는 어김없이 ‘애애앵~애앵~’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방범대원들이 부는 호루라기 소리, ‘타닥타닥’ 다급하게 뛰어서 달아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뒤이어 숨 가쁘게 울리곤 했다. 밤 10시 라디오에서는 차분한 음악을 배경으로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는 여자 성우의 목소리가 이미 울린 터였다. 11시가 넘어서부터는 막차와 택시를 잡아타려는 사람들의 분주한 목소리, 발걸음 소리로 거리가 들썩거렸다. 지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이 모든 소리들의 근원은 바로 ‘야간통행금지법’이다. 야간통행금지법은 매일 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으로 흔히 ‘통금’이라는 약칭으로 불렸다. 통금법은 1945년 9월 8일 ‘미군정 포고령 1호’에 의거하여 시작되어 1982년 1월 5일 폐지될 때까지 무려 36년 4개월 동안 시행되었는데, 처음에는 서울과 인천에만 적용되었으나 6·25 전쟁이 끝난 이듬해인 1954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지금은 사라진 이 소리들이 일상의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소리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리들을 몸소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기억하는 것은 그저 라디오와 거리에서 울려나오던 소리들뿐만이 아니다. 불안한 정세, 군부정권의 서릿발 같은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위되던 밤거리의 평범한 일상과 낭만, 그 시절 그 소리들을 들었던 공간, 그리고 그 속의 나. 통금 소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삼시간에 현재로 소환한다.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그 시절 실존에 숨을 불어넣는 것이다. 통금 사이렌 소리가 환기하는 것은 소리에 대한 단순한 청각적 경험이 아니다. 그 소리가 살아있던 시대에 대한 실존적 기억이다. 우리는 이처럼 통금 소리를 계기로 함께 겪어낸 시대를 기억해내는 사람들의 집단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집단과 구분하여 하나의 세대 단위로 묶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소리’를 토대로 단일한 세대 단위로 범주화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동일한 ‘소리 세대’로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통금법이 시행되던 시절 통금 소리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에게 통금 소리는 터클이 말하는 ‘환기 대상’으로 작용한다. 환기 대상으로서 통금 소리는 통금 소리를 매개로 결속되는 소리 세대에게 집단적인 효력을 행사한다. 즉 통금 소리는 통금 소리를 실제로 들었던 사람들에게 통금 소리가 일상의 소리 풍경에 새겨져 있었던 시대에 대한 감성을 집단적인 수준에서 환기하며, 그럼으로써 이들을 동일한 소리 세대로 구획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통금 소리를 매개로 하는 시대적 감성 공동체로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소리 세대를 결속시켜주는 시대적 감성은 통금 소리가 살아 있는 풍경을 이루었던 과거 시대의 산물이며, 따라서 회고적인 성격을 띤다. 그렇기 때문에 통금 소리를 몸소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통금 소리가 환기하는 시대적 감성을 공유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타성은 통금 소리를 매개로 하는 소리 세대를 특정한 감성 공동체로서 더욱 선명하게 구획해내며 그 구성원들 사이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더욱 강화한다.

3. 내러티브로 구축되는 소리 세대

통금 소리로 결속된 소리 세대는 생물학적 생애주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통금법이 시행되던 시대를 함께 살아낸 아버지와 딸은 동일한 소리 세대의 동등한 일원이 될 수 있다. 한편 통금 소리로 결속된 소리 세대는 특정하게 구획된 시대에 삶의 한 부분을 걸치고 있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시대 구속적인 성격을 띤다. 하지만 특정 시대의 특정 소리를 구심점으로 하여 형성된 소리 세대가 언제나 특정 시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소리 세대는 여러 시대를 관통하며 비동시적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다.²⁹⁾ 이것은 소리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구축되는 집단적 내러티브와 이를 통해 형성되는 집단 정체성의 작용 덕분이다. 소리에 대한 내러티브는 소리와 연루된 시대 감성을 확장하고 재해석, 재구성하면서 그것이 새로운 시공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준다. 그리고 특정 소리를 둘러싼 집단적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일상적 소리 풍경에 그

29) 이뿐만이 아니다.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상이한 소리 세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 사례는 다음 장, “V. 테크놀로지가 구성하는 소리 세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될 것이다.

소리가 더 이상 자리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 소리에 의해 결속되는 소리 세대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딱딱딱~따악따악’ 다듬이 방망이 두드리는 소리. 오늘날 가정의 소리 풍경에서는 자취를 감춘 소리다. 하지만 80대 이상 노인들의 기억 속 소리 풍경에 이 소리는 아직 살아 있다. 다듬이질은 겹옷이나 솜옷처럼 가을이나 겨울에 입는 옷의 옷감과 이불 흘청을 세탁한 후 풀을 먹여 단단한 다듬잇돌 위에 펼쳐 놓고 방망이로 두드려 구김살을 펴고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다. 늦가을과 겨울 주로 하루 일과를 마친 밤에 울려 퍼지던 여인들의 다듬이 소리는 어린 아이들을 재우는 자장가이자 취객들의 귀가를 재촉하는 신호음이었다. 옷감이 개선되고 세탁기가 보급됨에 따라 다듬이질이 필요 없게 되면서 집 안에서 낭랑하게 울려 퍼지던 다듬이 소리도 함께 사라졌다. 다듬이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것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1930년대 방망이를 짚는 장인과의 일화를 담은 수필 “방망이 짚던 노인”의 저자 윤오영이 1974년에 이 수필을 발표하면서 “방망이를 구경한 지도 참 오래다. 요사이는 다듬질 하는 소리도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³⁰⁾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1970년대 즈음에는 다듬이 소리가 이미 일상의 소리 풍경 저 너머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졌던 다듬이 소리가 오늘날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집 안에서가 아니다. 다듬이 소리를 소재로 하는 공연 안에서,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안에서, 전통 체험장 안에서, ‘잊혀진 소리’를 추적하는 방송 안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ASMR 사운드 스트리밍 안에서 다듬이 소리가 다시 울리고 있다. 다듬이 소리를 내세운 전통 공연들은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데 2013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다듬이 소리 공연에서는 250명이 다듬이들을 두드리기도 했다. 전국 최초로 창단된 다듬이 공연단인 전라북도 고산 창포마을의 ‘다듬이 할머니 공연단’은 2006년 창단된 이래 연 70-80회에서 많게는 100회 이상까지 공연을 해오고 있으며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 공연단에 대한 한 기사는 “흥에 겨워 내리치는 ‘또닥또닥’ 거리는 방망이 소리에 50대 이상 장노년층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진한 향수에 빠졌

30) 윤오영, “방망이 짚던 노인,” 『한국 수필 75인집』, 한국수필가협회 편집 (서울: 범우사, 1974), 264.

고, 30~40대도 감동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³¹⁾ 다듬이 소리는 다양한 전통 체험장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다. 용인 민속촌의 다듬이 체험장이 대표적이다. 다듬이 소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잊혀진 소리들을 소개하는 방송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며³²⁾ 평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ASMR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듬이 소리는 동요³³⁾와 아동문학작품 안에서도 울리고 있다. 한솔교육에서 2001년 펴낸 『별이 간직한 소리』는 서울 손녀 예술이와 함께 살게 된 할머니가 들고 온 다듬이 방망이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³⁴⁾ 예술이는 할머니의 다듬이 방망이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작품이라는 이야기, 아빠가 할머니의 다듬이 소리를 들으며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다듬이에 담긴 가족의 추억과 내러티브를 배운다. 그리고 다듬이 소리를 둘러싼 내러티브를 ‘우리 가족’의 내러티브로 내면화한다.

오늘날 되살아난 다듬이 소리가 우리의 ‘일상적’ 소리 풍경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듬이 소리가 일상의 소리 풍경을 이루던 시대, 다듬이 소리가 울리던 일상의 맥락 역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다듬이 소리는 현재의 맥락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가운데 새로운 감성을 획득해 나가고 있다. 가을, 겨울밤 까만 하늘과 하얀 등불을 배경으로 집집마다 울려 퍼지던 다듬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다듬이 소리가 재현되는 현재의 맥락 안에서 다듬이 소리를 배운다. 그런데 이들이 배우는 것은 소리만이 아니다. 이들이 배우는 것은 다듬이 소리의 내러티브다. 이 내러티브는 다듬이 소리가 일상의 소리 풍경을 이루던 시대의 내러티브가 아니다. 이 내러티브는 우리가 다듬이 소리를 이해하는 방식의 내러티브, 나아가 우리가 다듬이 소리로부터 이끌어내고 싶은 내러티브다. 다듬이 소리를 둘러싼 오늘날의 내러티브는 그것이 얼마나 정겹고 아름다운 것이었는지에 대한 서술로 가

31)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9057300055?input=1195m> [2022년 2월 28일 접속].

32)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pzyCINskOQ>, <https://www.youtube.com/watch?v=FjGdi4TKlQk> [2022년 2월 28일 접속].

33) 그 예로 조원경 작곡의 《다듬이 소리》가 있다.

34) 이영옥, 『별이 간직한 소리』(서울: 한솔교육, 2001).

득 차 있다. 마치 타악기 소리 마냥 유려한 다듬이 소리는 그 자체로 매우 아름다운 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과거에 대한 향수, ‘어머니’라는 개념과 결합될 때 ‘그리움’과 ‘정겨움’이라는 감성으로 귀결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1938년에 발표된 소설 《다듬이》에서 채만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기 우는 소리와 다듬이 소리, 이 두 가지는 나에게 천하 무서운 대적(對敵), 아니 大賊이다. 울지 않는 아기와 다듬이질 않는 여자가 있다면 나는 없는 포켓이나마 있는대로 털어서 두 개의 송덕비(頌德碑)를 종로 인경전 앞 한복판에다가 세워 주리라고 하늘에 맹세한 적도 있다.”³⁵⁾ 집에서 쉬거나 글을 읽는 사람에게 다듬이 소리가 정겹게 들렸을 리 만무하다. 또한 하루 종일 가사 일에 시달린 여인들이 밤에도 쉬지 못한 채 허리를 세우고 앉아 방망이를 두드릴 때 그들에게 그 소리가 과연 아름답게 들렸을지 의심스럽다. 그들에게 다듬이 소리는 ‘한’(恨)의 청각적 구현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 회자되는 다듬이 소리의 내러티브는 ‘시끄러움’이나 ‘한’보다는 ‘아름다움’, ‘정겨움’, 그리고 ‘향수’다. 물론 채만식의 시대에도 다듬이 소리는 아름답고 정겹게 들렸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다듬이 소리를 에워싸고 있는 ‘아름다움’, ‘정겨움’, 그리고 ‘향수’라는 감성은 오늘날 다듬이 소리가 복원되는 맥락 안에서 강화되고 재구성된 것이다. 다듬이 공연을 보고 다듬이 체험을 하면서, 다듬이 방송을 보고 다듬이 ASMR을 들으면서, 그리고 다듬이 동요를 듣고 다듬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동으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 구성된 다듬이 소리의 내러티브와 감성을 배운다. 그리고 이 내러티브에 따라 다듬이 소리를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소리’로 내면화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집단 정체성을 공유하며 서로 결속하게 된다.³⁶⁾ 우리는 이들을 다듬

35) 채만식, 『다듬이 소리』, 전자책 (서울: 9의 예술, 2021).

36) KBS가 1985년 성인 천 명을 대상으로 한국을 상징하는 소리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듬이 소리가 판소리, 팽과리 소리를 제치고 1위로 뽑혔다. 일군의 학자들은 우리의 자아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 구축해 나가는 내러티브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다. Daniel Dennett, “Why Everyone Is a Novelist,” *The Times Literary Supplement* 4459 (Sept. 16-22, 1988), 1016, 1028-1029; Ulric Neisser and Robyn Fivush, *The Remembering Self: Construction and Accuracy in the Self-Narra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이 소리에 의해 결속된 소리 세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듬이 소리의 내러티브가 시대를 가로질러 지속되고 계승될 때 이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소리 세대의 일원으로서 범주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듬이 소리는 비동시적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을 하나의 세대 단위로 묶어준다.

V. 테크놀로지가 구성하는 소리 세대

앞 장에서는 음악이나 소리가 한 세대의 공통적 정서를 형성하거나 혹은 집단적 기억을 구성하여 세대를 관통하는 지속성을 갖는다는 점, 즉 감성 공동체로서의 소리 세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 살펴볼 것은 동일한 음악이나 소리를 나름의 세대가 각기 어떻게 다르게 듣는가 하는 문제이다. 앞 장의 관심이 음악이나 소리가 만들어 내는 정서, 혹은 그 내용이라면, 이번 장의 관심은 그것을 듣는 방식, 양상, 기술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청취 양상의 변화, 즉 청취의 기술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소리와 관련된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살펴, 기존 세대 이론들이 다소간 간과해왔던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세대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1. 청취의 기술(techniques of listening)

듣는 일은 그저 수동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눈은 최소한 감거나 뜯 수 있지만 귀는 내 의지대로 열거나 닫을 수 없으며, 보지 않으려면 눈을 감아버리면 되지만 들려오는 소리를 귀를 움직여 안 들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듣는 일은 그저 들려오는 소리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수동적 행위로 여겨지기 쉽다. 하지만 듣는 방식도 신체를 사용하는 다양한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와 문화 속에서 구성된다. 즉, 듣는 행위는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각 문화와 사회 안에서 구성되는 '청취의 기술'(techniques of listening)을 사

Press, 1994); Michael Gazzaniga, *The Mind's Past* (California: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98); Marya Schechtman, *The Constitution of Selv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용하는 적극적 행위라는 것이다.

‘청취의 기술’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모스(Marcel Mauss, 1872-1950)의 ‘신체의 기술’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모스는 1934년 프랑스 심리학회(Société de Psychologie)에서 진행한 ‘신체의 기술’(Les techniques du corps)이라는 강연에서 자연스러워 보이는 다양한 몸의 움직임들도 사실은 사회와 문화의 관습이 깃들여 있다고 주장한다.³⁷⁾ 예컨대 수영하는 법과 같이 연습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는 물론이요, 걷고 달리는 것 같은 자연스러워 보이는 행동에서도 사회와 문화의 관습이 보인다는 것이다.³⁸⁾ 그리고 이러한 신체의 기술 차이가 한 공동체 안에서는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체의 기술’이라고 하는 모스의 개념을 소리 연구에 적용한 사람은 스텐(Jonathan Sterne, 1970-)이다. 그는 저서 『청취의 과거』(*The Audible Past*)에서 모스가 주장하는 신체의 기술에 듣는 행위, 곧 청취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청취의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³⁹⁾

만일 신체의 움직임과 사용마저도 사회와 문화에 의해 구성되고 그것이 성별과 나이에 의해 달리 구성될 수 있다고 하는 모스의 주장과 그것을 청취의 문제로까지 확장시킨 스텐의 통찰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청취 양상의 변화를 세대 문제와 결합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청취의 기술이 테크놀로지에 의해 적극적으로 구성되는 예로 ‘찌는’ 음색이라는 표현과 그 표현이 드러내는 청취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표현이 암시하는 청취의 양상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러한 청취의

37) 이 강연은 *Journal de psychologie normale et pathologique*, Année XXXII, 1935, 271-293에 실렸고 다시 Marcel Mauss, *Sociologie et Anthropologie*, 4th editio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8), 364-386에 실렸다. 이 글은 *Economy and Society* 2/1 (1973), 70-88에 “Techniques of the Body”라는 제목으로 영역되어 다시 실렸다(역자는 Ben Brewster). 본 논문이 주로 참고하고 있는 글은 영역본이다.

38) 이 글에서 모스가 제일 먼저 드는 예는 프랑스와 미국 소녀들의 각기 다른 걸음걸이다.

39) Jonathan Sterne, 『청취의 과거』(*The Audible Past*), 윤원화 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2010), 24.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테크놀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테크놀로지와 그것이 구성하는 청취 양식의 차이가 세대 차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찌는’ 음색

‘찌는’ 음색이라는 표현은 같은 음악이나 소리를 들을 때도 세대에 따라 각기 다른 청취의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 그러므로 청취의 기술이 세대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찌는’ 음색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2010년경이지만 이 표현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경이다. 이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청자의 어떤 경험을 지시하는지 아직 치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이 표현이 지시하는 경험의 공통점들이 드러난다. 이 공통점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이 표현은 어떤 소리나 음악(대체로는 가수가 부르는 대중음악의 목소리)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즉각적’이라는 말은 당연히 무엇보다도 ‘소리를 듣자마자’라는 의미이며, 여기에는 그 소리/음악의 ‘구조적 면모나 내러티브를 고려하지 않고’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질 때 ‘앗 뜨거워’ 하면서 손을 그 물체에서 떼어내듯, 특정한 (목)소리/음악을 경험하자마자 반응하는 표현이다. ‘찌는’ 음색의 이러한 특징은 필자가 수행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드러날 뿐 아니라⁴⁰⁾ 인터넷 웹사이트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음색 vs. 가창력’과 같은 포스팅을 통해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 심층 인터뷰나 인터넷 포스팅은 음색이 가창력과 별개의 것임을

40) 이 장의 필자는 “청취의 기술과 세대의 문제: ‘찌는’ 음색의 육체성”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 11월 13일,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가 주관한 학술대회 “소리와 청취의 정치학 III”에서 학술발표를 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 제목의 논문을 준비 중이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19세에서 41세 사이, 다양한 전공과 직업을 가진 16명의 사람들을 심층인터뷰 했다. 그들에게 ‘찌는’ 음색이 무엇이나고 질문했을 때, 세부적 표현은 각기 달랐으나 “듣자마자”, “생각하지 않고”라는 대답이 특징적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이 표현이 소리/음악 자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용어로 정착하게 되면서 초기의 의미가 변질되면서 자기가 선호하는 가수의 목소리를 원래의 의미와 관계없이 칭찬하는 의미로 ‘찐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져 혼란을 빚고 있다.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가창력이 소리/음악 구조나 내러티브의 다양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듣고 나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 반면 ‘찌는’ 음색은 듣자마자 판단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이 용어는 소리의 일반적 범주를 표현한다기보다는 기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매력적 목소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된다. ‘발성된’ 목소리 혹은 여하한 방식으로 ‘트인’ 목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서양 벨칸토 방식으로 발성된 소리는 물론 가수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그것이 서양 예술 음악을 노래하는 방식으로 발성된 소리라는 일반적 특징을 갖는다. 판소리 가수의 목소리 역시, 그것이 특정한 방식으로 훈련되어 성취된 일반적 목소리의 특성을 갖는다. 이에 반해 ‘찌는’ 음색은 일반화되지 않는, 오히려 그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하고 범주화되지 않는 독특한 소리 특성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이때 사용되는 ‘찌는’ 음색이라는 말은 소리를 범주화하는 ‘음색’(예컨대 바이올린 음색)과 구별되는 음색을 표현하는 역설적 표현이다.

세 번째로 이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특정 생애 주기적 범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MZ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음색 ‘찼다’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이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뿐 아니라 그것에 즉각적으로 동의하는 세대는 이동식 음향기기를 필수품처럼 사용하기 시작한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 MZ세대가 대략 각각 1980년부터 1994년생, 1995년부터 2004년생을 지칭하고, 첫 번째 이동식 음향기기인 소니사의 ‘워크맨’(Walkman)의 등장이 1979년이니, 이들은 새로운 음향기기, 음향 테크놀로지와 대체로 함께 태어난 세대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테크놀로지의 변화는 MP3 플레이어의 탄생이다. ‘워크맨’류의 음향기기와는 달리 카세트테이프나 CD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수많은 음원을 아주 작은 저장 장치에 담을 수 있게 된 이러한 음향기기의 탄생은 음향기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일을 더욱 손쉽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2001년 아이팟(iPod)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이 시점은 M세대의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22세에 다다르는 때다. 즉 M세대가 이 새로운 음향기기와 테크놀로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에 등장한 아

이리버 IFP100 시리즈가 아이팟과 경쟁하면서 새로운 이동식 음향기기, 음향 기술의 등장을 알렸다.

‘워크맨’ 시대와는 달리 MP3 플레이어는 이동성을 극대화했고 이와 같이 등장한 고성능, 소형 이어폰은 워크맨 시대의 상징물과도 같은 소형 헤드폰을 대신하면서 외출할 때마다 마치 옷을 입듯 이어폰을 ‘입는’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 냈다. 가끔씩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 오디오를 켜거나 워크맨의 헤드폰을 쓰는 세대와는 달리 일상 속에서 늘 이동식 사운드스케이프를 가지고 다니는 이 새로운 세대의 청취 양상이 같을 리 없다. 이들은 음악을 ‘감상’한다기보다는 음악을 배경으로 삼으며, 음악을 일상과 분리된, 혹은 내 신체와 분리된 대상으로 경험하기보다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내 신체의 한 부분으로 체험할 것이라는 점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결국 음악/소리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과 이를 독특한 방식으로 청취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은 세대를 설명하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열게 해준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 예는 기존의 MZ세대라는 세대 규정을 강화해 주는 또 다른 각주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M세대와 Z세대가 구별되지 않고 연결성을 갖는 지점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즉, 세대 변화를 이해하는 또 다른 기준은 소리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소리와 관계된 테크놀로지의 변화, 그리고 그것이 촉발하는 새로운 청취의 기술의 탄생을 세대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상의 논의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바는 테크놀로지 역시 사회적, 정치적 사건 못지않게 중요한 세대 변화의 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모든 테크놀로지의 변화나 발전이 세대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위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테크놀로지의 변화가 신체의 사용 양상에 있어 변화를 일으키고, 그러한 변화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소리 경험을 가능케 한다면 테크놀로지의 변화는 분명히 소리 세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VI.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은 소리적, 음악적 차원이 기존의 세대 이론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잠재력을 검토하고, 그 가능성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았다. ‘소리 세대’의 개념과 엔텔레키로서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세대 담론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온 만하임의 세대 이론을 수정하고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다.

먼저 본 논문은 만하임의 이론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만하임 이전과 이후의 세대 이론을 통해 만하임의 이론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점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만하임의 세대 이론에서 현실 세대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자, 삶을 영위하는 스타일로 정의되는 엔텔레키 개념이 오늘날의 삶에서 기술의 문제와 맺고 있는 관계성에 주목하고, 기술의 변화가 세대를 이해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찌는’ 음식에 대한 담론은 기술의 변화가 청취 방식의 변화를 야기하고, 그것이 다시 다양한 세대들 사이의 차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내는지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만하임의 세대 이론에서 간과되었던 정서적, 문화적 요소에도 주목하였다. 기존의 세대에 대한 담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세대 문화의 소리적, 음악적 차원은 결국 소리 연구가 세대 문제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소리 세대’라는 개념을 통하여 소리나 음악과 같은 청각적 차원이 어떻게 세대를 감정적으로 결속시키고 그로부터 하나의 내러티브를 구축하게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결국 본 논문에서 제안된 세대와 관련된 문화의 청각적 차원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소리와 음악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청각적 차원이 기존의 세대 이론 속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세대의 소리적 차원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문화에서 중요하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청각적 차원에 관심을 두는 일이자, 그것이 설명해 내는 우리의 사회적 삶의 한 양상에 정당한 위치를 부여하는 일일 것이다. 소리 연구가 세대 이론과 만나고 있는 지점은 그러한 점에서 새롭고 유의미하다.

한글검색어: 소리 연구, 세대 이론, 칼 만하임, 엔텔레키로서의 테크놀로지, 감성 공동체로서의 세대, 소리 세대, 소리 세대와 기술

영문검색어: Sound Studies, Theory of Generations, Karl Mannheim, Technology as Entelechy, Generation as Community of Shared Feelings, Sonic Generation, Sonic Generation and Technology

참고문헌

- 노환희, 송정민, 강원택.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7/1 (2018): 205-240.
- 박재홍.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2001): 47-78.
- 윤오영. “방망이 깎던 노인.” 『한국 수필 75인집』. 한국수필가협회 편집, 261-264. 서울: 범우사, 1974.
- 이영옥. 『별이 간직한 소리』. 서울: 한솔교육, 2001.
- 전상진.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세대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학』 38/5 (2004): 31-52.
- 정혜윤.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은 어떻게 전 국민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는가?” 『인문논총』 78/4 (2021): 339-374.
- 채만식. 『다듬이 소리』. 전자책. 서울: 9의 예술, 2021.
- 최셋별.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연대기: 세대 간 문화 경험과 문화 갈등의 자화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 Carr, Nicholas. *The Shallows: What the Internet is Doing to Our Brains*. Updated Edition. New York: W. W. Norton & Co., 2020.
- Cohen, S. Marc and C. D. C. Reeve. “Aristotle’s Metaphysics.” I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s://plato.stanford.edu/entries/aristotle-metaphysics/> [2022년 2월 28일 접속].
- Dennett, Daniel. “Why Everyone Is a Novelist.” *The Times Literary Supplement* 4459 (September 16-22, 1988): 1016, 1028-1029.
- Gazzaniga, Michael. *The Mind’s Past*. California: California University Press, 1998.
- Jureit, Ulrike and Michael Wildt. “세대들.” 『‘세대’란 무엇인가? 카를 만하임 이후 세대담론의 주제들』(*Generationen: Zur Relevanz eines wissenschaftlichen Grundbegriffs*), 13-42. Edited by Ulrike Jureit and Michael Wildt. 한독젠더문화연구회 역.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 _____. “기억공동체로서의 세대: 세대적 오브제 ‘유대인 추모비’.” 『‘세대’란 무엇인가? 카를 만하임 이후 세대담론의 주제들』, 339-368. Edited

- by Ulrike Jureit and Michael Wildt. 한독젠더문화연구회 역.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4.
- Knoch, Habbo. “감정공동체: 현대에서 나타나는 이미지와 세대.” 『‘세대’란 무엇인가? 카를 만하임 이후 세대담론의 주제들』, 406-440. Edited by Ulrike Jureit and Michael Wildt. 한독젠더문화연구회 역.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4.
- Loader, Colin.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of Karl Mannhe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 Mannheim, Karl. 『세대 문제』(*Das Problem der Generationen*). 이남석 역. 서울: 책세상, 2013.
- _____.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Edited by Paul Kecskemeti, 276-320.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52.
- Mauss, Marcel. “Techniques of the Body.” *Economy and Society* 2/1 (1973): 70-88.
- Neisser, Ulric and Robyn Fivush. *The Remembering Self: Construction and Accuracy in the Self-Narra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Scharff, Robert C. and Val Dusek (Eds.). *The Philosophy of Technology: Technological Conditions, an Anthology*. 2nd Edition. New York: Willey-Blackwell, 2014.
- Schechtman, Marya. *The Constitution of Selv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 Steele, Brent J. and Jonathan M. Acuff. *Theory and Application of “Gener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 and Polit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
- Stern, Jonathan. 『청취의 과거』(*The Audible Past*). 윤원화 역. 서울: 현실문화연구, 2010.
- Tuckle, Sherry. *Reclaiming Conversation: The Power of Talk in a Digital Age*. New York: Penguin Books, 2015.
- _____. *Evocative Objects: Things We Think With*. Cambridge:

MIT Press, 2007.

Turner, Bryan S. (Ed.). *The Cambridge Dictionary of Soci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국문초록

소리 세대(sonic generation):
엔텔레키, 테크놀로지, 감성의 공동체

정 이 은 · 정 혜 윤 · 이 상 욱 · 정 경 영

본 연구는 소리적, 음악적 차원이 세대 담론에 있어서 차지할 수 있는 이론적 잠재력을 검토하고,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칼 만하임(Karl Mannheim, 1893-1947)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대 이론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거나, 간과되어 온 세대의 소리적, 음악적 차원에 주목한다. 특히 본 논문은 (1) 만하임의 엔텔레키 개념과 기술의 역사적 변화가 맺고 있는 관계성에 주목하고, (2) 소리나 음악과 같은 청각적 차원이 다양한 세대 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면을 드러냄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기존의 세대 이론이 소리 연구를 통해 세대의 청각적 측면을 고찰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세대 단위가 소리 연구의 흥미로운 토픽이 될 수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

Abstract

Sonic Generation: Entelechy, Technology and Community of Shared Feelings

Chung, Yi Eun · Chung, Hye-yoon ·
Yi, Sang Wook · Chung, Kyung-Young

This paper examines the theoretical potentials of auditory dimension in the preexisting theory of generations, suggesting the new concepts such as sonic generation, technology as entelechy, and generation as community of shared feelings. In the field of generation theory, Karl Mannheim (1893-1947) provides the influential theoretical frame which is still used as a fundamental basis for various discourses on generation. This paper pays close attention to the vacancy of sonic and musical dimension in those generation-related discourses since after Mannheim's theory. In particular, this paper (1)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entelechy in Mannheim's theory and technological changes which give rise to the changes of techniques of listening, and (2) argues that various auditory dimensions reveal the important aspects of generation-related phenomenon. Ultimatel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viewpoint from sound studies further expands the scope of generation theory.

[논문투고일: 2022. 02. 28]

[논문심사일: 2022. 03. 18]

[게재확정일: 2022. 03. 28]